

다크호스 한승혁 복귀 KIA 마운드 천군만마

손가락 부상 두달만에 복귀...구속 150km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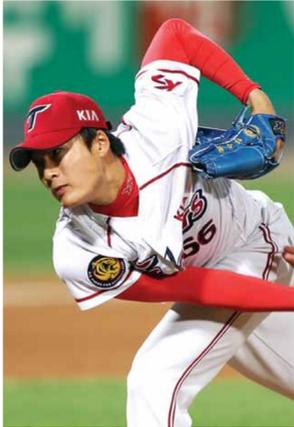
엔트리 교체로 반격을 시작한 '호랑이 군단'. KIA 한승혁의 시즌도 다시 시작된 것이다.

KIA 타이거즈는 16일 엔트리 교체로 전력을 재정비했다. 수비에 무게를 두고 투입했던 내야수 최병연과 포수 한승택과 부진했던 투수 한기주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대신 한방 있는 백용환(포수), 신종길·오준혁(이상 외야수)을 투입하면서 공격에 무게를 실었다.

KIA는 앞서 안방에서 치른 두산과의 경기에서 14일 6-8, 15일에는 4-7의 역전 패를 당했다. 불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의 추격 의지를 꺾을 목적인 공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쉽게 승리를 향한 마지막 능선을 넘지 못했다. 결국 16일 경기를 앞두고 공격 강화 측면에서 야수 세 명을 새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날 엔트리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새로 등장한 얼굴이 있었다. 앞서 14·15일 kt와의 퓨처스 경기에 실전 점검을 끝낸 한승혁이 1군 선수단에 합류해 복귀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한승혁에게는 사실상 시즌이 새로 시작했다.

스프링 캠프에서 한승혁은 마무리 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투구폼 교정을 통해서 특유의 강속구는 그대로, 제구는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한승혁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꼽는 올 시즌 다크호스였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고질적인 팔꿈치 통증이 악화하면서 시범경기에서 자취를 감췄던 그는 지난 4월 27일 윤석민과 김윤동의 부상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1군 콜업을 받았다. 그러나 한 경기에 모습을 보인 뒤 3일 만에 다시 엔트리에 말소됐다. 왼손 엄지 손가락 골절이라는 뜻밖의 부상을 당하면서 짐을 쌓다. 핀 고정수술을 받으면서 한동안 클리브를 내려놓아야 했던 한승혁은 지난 11일 소프트뱅크 3군과의 교류전에서 실전 피칭을 재개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퓨처스 경기에 나오면서 감을 잡았다. 두 경기에서 3이닝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1군 합류 지시를 받았다. 직구 최고 스피드도 150km를 찍는 등 컨디션은 좋다.



한승혁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부상으로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팀에 죄송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야구를 하면서 거의 씬없이 달려왔는데 수술을 하고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었다. 내 야구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다. 재충전을 하고 다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다시 찾은 1군. 여전히 그는 자신의 다음 무대가 궁금하다. 한승혁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투구폼을 바꾸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올 시즌을 준비했었다. 투구폼 수정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얻었다. 그런데 팔꿈치와 손가락 부상으로 제대로 준비할 것을 보여드리고, 시련해볼 기회가 없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 자신도 궁금하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시 출발선에 선 한승혁은 '믿음'을 말한다.

한승혁은 "생각이 많은 편인데 마음 편하게 먹고 내 공을 던지자는 마음으로 왔다. 안정되고 좋은 모습으로 믿음을 드리고 싶다. 달린 모습으로 시즌 끝까지 1군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일본 통산 4257개 안타...이치로 최다안타 기록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 파크에서 미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 9회에 스텔라 이치로가 2루타를 터뜨리고 있다. 그의 이 안타는 미·일 통산 4천257번째로 이치로는 피트 로즈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선수'가 됐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순수 기록이 아닌 일본 프로야구 성적이 합산됐기 때문에 논란도 적지 않다. 피트 로즈는 "나도 마이너리그서 친 안타를 더하면 훨씬 많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흠린치면 진다? 이범호 "올화통 터져요"

덕아웃 T 특특

▲올화통이 터져요

흠린을 연달아 터뜨리고 있는 이범호는 올화통도 같이 터진다. 이범호는 지난 15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멀티홈런을 기록하는 등 최근 무서운 홈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6월 8일 한화전에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이범호는 11일 하루 쉬고 12일 삼성전부터 15일 두산전까지 다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날렸다. 15일에는 멀티 홈런까지 장식했다. 그러나 그가 홈런을 기록한 경기에서 팀은 2승4패로 부진했다. 멀티 홈런에도 웃지 못한 이범호는 "올화통이 터진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유회관 못지 않을 걸요

16일 경기 전 취재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선수는 선발 투수 정동현이었다. '고졸 루키'인 정동현은 지난 1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첫 선발전을 치러 승리투수가 됐다. 익숙하지 투수인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높았다. 정동현은 공은 느리지만 제구와 구위가 좋은 좌완이다. "유회관(유행)이나?"라는 질문에 김기태 감독은 "(스피드는) 유회관 못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해 웃음을 주었다. 김 감독은 "스피드는 느리지만 견제 능력도 그렇고 신인 같지 않은 모습이 있다"며 정동현을 칭찬했다.

▲6명입니다

'호랑이 군단'의 대세 92라인이다. KIA에는 유난히 92년생 동생들이 많다. 1군도

예외는 아니다. 16일 외야수 오준혁이 1군에 등록됐고, 투수 한승혁도 1군에 합류하면서 92동기의 수가 늘었다. 대세 92라인의 '대세' 흥건희는 "야수까지 포함하면 6명이다"면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좌완 이준영, 사이드암 박준표, 외야수 김호영 92동기들이다.

▲뭘 해야 하지

오랜만에 찾은 1군이 어색한 백용환이다. 포수 백용환이 16일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거의 한 달 만에 1군에 복귀했다. 백용환은 지난 5월 21일 SK와의 홈경기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오랜만에 돌아온 백용환에게는 잠시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다. 백용환은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한동안 덕아웃을 배회했다.

▲좋아요

16일 박준표는 외야수 김호영과 구단 공식지정병원인 연희한방병원이 시상하는 5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5월 11경기에 등판한 박준표는 18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속아내며 3승을 거뒀다. 특히 선발이 일찍 무너졌던 경기에서 긴 이닝을 책임져주는 등 전전후 역할을 하며 불펜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박준표는 "감독님께서 인정해주셔서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야수 부문 수상자 김호영은 5월 2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3, 9타점 16득점 6도루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이날 시상은 연희한방병원 최관준 원장이 했고, 상금은 50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4출루...5점차 뒤집었다

2안타 2볼넷 1도루 활약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올 시즌 첫 2루타를 포함해 5번의 타석에서 4차례나 출루에 성공하며 공격 점령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만점 활약 속에 5점 차 뒤집기에 성공했다.

추신수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O.co. 콜리세움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경

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에 3타수 2안타 2볼넷 1도루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지난 14일 복귀전에서 시즌 첫 홈런을 쏘아 올린 추신수는 복귀 이후 세 번째 경기에서는 시즌 첫 2루타를 포함해 첫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에 시즌 두 번째 도루까지 성공하며 총합무진 활약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74에서 0.231(26타수 6안타)로 경종 뛰어올랐다.

텍사스는 0-5로 끌려가던 6회초 오글랜드 에이스 소니 그레이에게 추신수의 2루타를 비롯해 집중타를 퍼부어 5득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7회초와 8회초에 각각 타진 로빈슨 치리노스, 루그네트 오도어의 홈런에 힘입어 7-5 역전승을 일궈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그레이의 4구째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3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그레이의 95마일(약 153km)짜리 몸쪽 빠른 공을 밀어쳐 깔끔한 좌중간 안타로 연결했다. 타격감을 끌어올린 추신수는 6회초 선두타자 치리노스의 솔로포가 타진 이후 타석에 들어서 그레이의 94마일(약

151km)짜리 바깥쪽 직구를 밀어쳐 왼쪽 담장 상단을 때리는 2루타를 쳐냈다.

추신수의 시즌 첫 2루타로 흐름을 이어 간 텍사스는 이안 데스몬드의 우익 선상 2루타로 또 1점을 만회했다. 텍사스는 이후 프린스 필더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오도어의 투런포로 단숨에 5-5 동점을 만들었다. 추신수는 7회초 1사에서 바뀐 투수 존 엑스포드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낸 뒤 올 시즌 두 번째 도루에 성공했으나 후속 타자들이 범타로 불리나 득점에는 실패했다.

추신수는 9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볼넷을 끌러내 4출루 경기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야구 하계리그 3연패 시동

20일 제주관광대와 격돌

동강대(총장 김동욱)가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 3연패를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동강대 야구부는 오는 20일 낮 12시 포항야구장에서 열리는 '2016년 전국대학 야구 하계리그' 2부리그 첫 경기로 제주관광대와 맞붙는다.

동강대는 지난 2014년 하계리그 우승을 거머쥔 데 이어 지난해에도 하계리그를 겸한 추계리그 우승컵까지 들어올리

며 장단 11년 만에 전국대학야구대회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야구부 분위기도 상승세다. 지난 5월 '제 71회 전국 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1부리그 소속으로 야구 명문인 고려대를 꺾고 우승으로 꺾은 점 등으로 기세도 한껏 올라갔다.

동강대는 제주관광대와의 첫 경기 뒤 한중대(21일), 세계사이버대(22일), 영동대(25일), 재능대(28일)와 차례로 경기를 치른다.

화정초,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야구 우승

화정초가 제23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됐다.

광주지역 7개 초등학교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화정초는 송정동초와의 첫 경기에서 10-4로 이긴 뒤, 대성초를 5-3 꺾으며 연승을 달렸다. 화정초는 서석초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7-6으로 승리를 하며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46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을 겸해 치러졌다.

◇시상내역

▲우승 : 화정초 ▲준우승 : 서석초 ▲최우수선수상 : 김용우(화정초) ▲우수투수상 : 김승민(화정초) ▲타격상 : 구동규(5타수5안타·서석초) ▲최다도루상 : 조진석(6개·화정초) ▲최다타점상 : 공지용(5타점·서석초) ▲감투상 : 하상욱(서석초) ▲미기상 : 정우석(서석초) ▲감독상 : 유종열(화정초) ▲지도상 : 유승현(화정초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